

중기 '매출 효자' 인데... 조달청 제품 선정 '바늘구멍'

광주·전남 지정 비율 5%대 그쳐 올해 전남 12곳·광주 한곳도 없어 지정 땀 매출 두 배 증가하기도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에 뽑힌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판로를 얻어 실적을 내고 있지만 지역 선정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조달청 우수제품'에 선정된 157개사 가운데 이름을 올린 지역 기업은 12개사로, 전체의 7.6%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회 선정에서는 49개사 가운데 전남 8개사(16.3%)가 뽑히며 좋은 성적을 냈다. 코로나19 여파로 2회 선정은 취소됐고, 이어서 열린 3회 선정에서는 전체 47개사 가운데 지역에서는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달 초 진행된 4회 우수제품 지정에서는 전체 61개사 가운데 ㈜신호엔지니어링(태양광발전시스템), 금산씨엔씨(금속제 창호), ㈜지엔씨(해상 부유구조물), ㈜후소엔지니어링(오수처리시설) 등 전남 4개사가 포함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서 광주 기업은 단 한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광주지역 제조업체는 대부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로, 시제품 제작에 도전할 만한 완성품 제작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광주가 우수제품이 선정되지 못한 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광주와 함께 전남도 선정 '0개'라는 오명을 남겼고, 지난 2017년 전남에서 11개 기업을 배출할 동안 광주는 한 곳도 이름을 못 올렸다.

광주·전남지역 우수제품 지정 비율은 평균 5% 안팎으로 전국 최하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전체 지정제품 136개 가운데 전남 5개·광주는 3개 등 5.9%에 해당하는 8개가 선정됐다. 이후 ▲2015년

162개 중 전남 9개·광주 2개(6.7%) ▲2016년 176개 중 전남 14개·광주 2개(9.1%) ▲2017년 234개 중 전남 11개·광주 0개(4.7%) ▲2018년 261개 중 전남 8개·광주 2개(3.8%) ▲2019년 281개 중 전남 8개·광주 4개(4.3%) 등 초라한 성적을 냈다.

최근 7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은 전체 지정제품 1255개 가운데 단 68개(광주 13개·전남 55개)만을 배출하며 지정비율은 평균 5.4%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정기업 중 통과한 비율은 26.6%(281개 통과)로,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지난 1996년에 도입됐다. 우수제품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나라 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이 같은 혜택 덕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 효자노릇을 한다.

지난 2017년에 선정된 전남 11개사의 경우 이듬해인 2018년 구매액은 240억4500만원으로, 1년

전(119억2800만원)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실적도 299억원으로 전년보다 24.4%(59억원) 올랐다.

2018년 선정 광주 2개·전남 8개 등 10개사 구매액도 2018년 197억7700만원에서 2019년 208억원으로 5.1%(10억23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선정된 광주 4개·전남 8개 등 12개사 역시 구매액이 올랐다.

올해 실적은 296억67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구매액(287억5800만원)의 3.1%(9억900만원)를 넘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남산농원' 꽃으로 연말 분위기 내세요
롯데이몰렛 광주수원점 직원들이 전남 화훼농가 '남산농원'과 연말까지 운영하는 임시매장에서 다양한 꽃과 화분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반려식물과 집꾸미기에 활용할 수 있는 총 50여종의 식물을 선보인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7.42 (+1.78)
↑ 코스닥	859.94 (+8.20)
↑ 금리(국고채 3년)	0.955 (+0.006)
↑ 환율(USD)	1115.60 (+11.80)

에너지밸리 SW 경진대회 한전KDN, 수상작 선정

한전KDN은 지난 18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2020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6번째를 맞은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원)생 및 마이스터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 7월 시작한 모집공고를 통해 6개월 동안 대학생 36개, 고등학생 28개 등 총 64개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 가운데 1차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24팀(대학교 16팀, 마이스터고 8팀)이 뽑혔다.

시상식 당일 현장 발표와 심사를 통해 대학생 부문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과 마이스터고 부문에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등이 선정됐다.

대학생 부문 대상은 한국폴리텍대학교 목포캠퍼스 '스위치'팀이 차지했다. 대상작 '지역취업! S.O.S 헬멧'은 헬멧에 충격감지센서, 방향지시등, 블루투스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스터고 대상에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블랑'팀이 이름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 취임



최영호(사진) 신임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이 최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최 상임감사위원은 광주 금호고,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와 제3대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 제4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7·8대 광주시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한국전력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선도기업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의 틀을 깨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부분파업 돌입 '9년 연속'

24~27일 4시간씩...총 4000대 규모 손실 예상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기아차 광주공장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나흘 동안 이뤄지는 파업에서 하루 2000대를 생산하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총 4000대 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기아차 노조는 19일 정오부터 진행된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통해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은 오는 24~27일까지 나흘간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파업 결정으로 기아차 노조는 무분규 합의를 이뤄냈던 2011년 이후 9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18일까지 13차에 걸친 임금단체협상 본교섭을 벌이며 앞선 현대차처럼 코로나19

여파 무분규 합의를 기대했지만 노조 별도 요구안에서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73.3%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며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사는 중노위의 조정 중지 이후에도 4차례에 걸쳐 교섭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13차 교섭에서는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상여금 통상

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을 동결을 주장하는 한편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성과급 150%와 코로나 특별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큰 경영성과는 냈고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조원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는 소모적인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부분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아차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노조는 계획된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통계청 목포사무소 준공

호남지방통계청은 최근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목포사무소 신관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호남통계청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포사무소 내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신관 준공식을 열었다.

목포사무소 신관은 지난 3월 착공된 뒤 이달 준공됐다. 현 청사 여유 부지에 689㎡ 규모 건물물을 추가 건립해, 총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506㎡가 됐다.

목포사무소에는 지난 2009년 이후 농업통계 조직과 통합을 거치면서 인력이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김두만 호남통계청 목포사무소장은 "이번 준공은 목포사무소가 서남해안권의 국가통계 허브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통계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에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봄이 제 몸을 흔든다
김유석



오렌지 나무를 해담으로 칠해요
최지하



새, 블랙박스
양수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선애



그녀의 외로움은 B형
-새 글러브 중독자-
마경덕



사과상자의 이빨
전다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희재



메타자본세라이어 시선
강대선

* 7월 발간
김남수 시집 - 동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정영주 시집